현장건설인의 꿈 ’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 가장힘들었던것은 대학 시절이론적으로는배울수 없던 건설현장의 특성과 나의존재에대한 무기력함이었다. 공사현장 업무보다 많은서류 업무, 끊이지않고 발생하는 민원, 규칙적이지않은일과 생활및 잦은야근, 그리고외진 곳에서의 숙소생활 등나열하면수도없이 많은이러한악조건들은 사회 초년생인 필자를 딜레마에 빠지게하기에충분하였다. 아마도꿈과 현실의 차이에서 느껴지는 허탈감과 무기력함 같은종류였을것이다.

최인수
금호건설과장

금요일 저녁 6시면 부랴부랴 서울에 올라갈 준비로 분주하다. 이제 결혼 1년차 맞벌이 부부이자 주말부부인필자는신혼의기쁨으로항상이시간이기다려진다. 필자가이먼타지인전북김제에서꿈을펼치며즐겁게일할 수있는원동력은 바로아내의 믿음과사랑과이해가있기에가능하리라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현재직장에서즐겁게꿈을이루어가고 있는필자에게도사회초년생때에는이꿈을포기할까생각하게 하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이제부터 그 당시의 어려웠던, 물론지금생각하면웃으며유연하게대처할수 있는에피소드를소개할까한다.

1997년 대학 졸업과 함께 막연한 꿈을 가지고 회사에 입사한 지 벌써만으로10년이라는세월이훌쩍지나갔다. 1997년당시대학이라는상아탑에서4년간건설에대한이론을 배웠고화려하게완성되어 있는건축 구조물들을눈으로 보아오면서‘ 나도졸업 후에 사회에나가면저렇게멋지고아름다운건축물을만들어야지 하는부푼꿈을꾸곤하였다.

그런데현장생활을처음으로시작하면서덜컥겁이나기시작했다. 우선더없이화려하게완성되어있는건축물들이나만의능력으로한순간에쉽게올라가는것이아니라는것을깨달았다. 아무것도 없는황량한벌판에서흙을깎고쌓고구조물을만들어야하고…. 말그대로무에서유를창조하는현장의모든건설근로자들의땀과노력의결정체였던것이다.

사회초년생인나에게가장힘들었던것은대학시절이론적으로는배울수없던건설현장의특성과나의존재에대한무기력함이었다. 공사현장업무보다많은서류업무, 끊이지않고발생하는민원, 규칙적이지않은일과생활및잦은야근, 그리고외진곳에서의숙소생활등나열하면수도없이많은이러한악조건들은사회초년생인필자를딜레마에빠지게하기에충분하였다. 아마도꿈과현실의 차이에서느껴지는허탈감과무기력함같은종류였을것이다.

하지만 IMF 사태로 취업난이 극심한 당시 단지 내가 생각했던 화려한 꿈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좀 더나은환경의직장을찾거나또다른꿈을찾는다는것은너무나배부른생각이었다.

그렇게사회초년딜레마에빠져있던필자는많은고민과 선배들의 조언으로 사고의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 대학시절막연하게꿈꿔왔던‘ 멋지고아름다운건축물 에대한꿈이‘ 그건축물에대한결과보다는그것을이루어가는과정이더가치있는 것이 아닐까? ,”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결과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꿈으로 넘겨주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기위해서하고있는나의이러한일들이나의꿈이아닐까? 하고 생각하게되었다. 그렇게생각을바꾸고나니갑자기머리가맑아지고지금까지현장에서하고있는사소한일들하나하나가모두헛되지않고, 꿈을이루어가고있다는생각에가슴이탁트인기분이들었다.

세월은유수와같아그렇게나의꿈에대해고민하던때가엊그제같은데벌써10년이라는시간이지나갔다. 지금도그때를생각하며 필자는서울에서멀리떨어져있는이곳김제에서조그마한꿈을이루어가며하루하루를행복하게살아가고있다.

끝으로, 기쁘고어려울때함께힘이되어주고있는직장선배 · 후배 · 동료들, 항상타지에있는아들의건강때문에걱정하시는부모님, 그리고신혼임에도멀리떨어져서 고생하는사랑하는아내에게고마움을전하고싶다.